

## 방재시험연구원, 미국해안경비대(USCG) 인정 추가 획득

방재시험연구원은 2003년 2월, 미국 국적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로부터 국제해사기구(IMO) “화재시험절차 적용에 관한 국제기준(FTP Code)”의 Part 1 불연성 시험 분야에 대해 USCG 지정 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8월 FTP Code Part 3, 4, 5, 6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USCG 형식승인 지정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Part 1 불연성 시험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화문, 격벽 등의 구조체에 덧붙여, 방화문 및 벽 패널 등에 들어가는 암면, 석고보드, 접착제 등의 단일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USCG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업계의 수출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을 통하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USCG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대단히 큰 편이라 관련 업체들의 형식승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방기기분야 KS제정 연구, 한국산업규격(KS)으로 결실

작년 방재시험연구원이 국제표준규격(ISO)을 기초로 작성한 “소방기기분야 KS 제정 연구” 관련, 소방용 기기에 대한 6개 기준이 2002년 12월 30일 한국산업규격(KS)으로 공식 제정·고시되었다.

제정된 KS 규격은 화재분류(KSB6259), 화재현상 및 일반용어(KSBISO8421-1), 건축소방(KSBISO8421-2), 제연(KSBISO8421-5), 피난 및 대피수단(KSBISO8421-6), 폭발탐지 및 진압수단(KSBISO8421-7) 등 6개 분야이다.

“소방기기분야 KS 제정 연구”는 ISO 국제규격은 있으나 KS 규격이 없는 휴대용 소화기 등

33종에 대하여 ISO 국제규격에 대응하는 KS 규격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우리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연구원은 소방분야 국제표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ISO/TC92 화재안전분야 국내 간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ISO/TC21 소방기기분야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소방간부후보생, 방재시험연구원 견학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39명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

안내 슬라이드를 시청하고 시험연구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연구원이 자랑하는 최신 소방실습설비들을 직접 작동해보며 그 동안 익혔던 소방실무기술을 체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현재까지 연구원을 다녀간 소방공무원들의 연 인원이 벌써 7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FY2002년에도 영등포소방서 등 약 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견학했다.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유가족 돕기 성금’ 전달

협회는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임·직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마련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유가족 돕기 성금’ 5,265,000원을 3월 6일 KBS방송국에 전달하였다.

## 특건 375건은 PSM·SMS 대상물건과 중복 - 안전점검 실시대상에서 제외 -

2003회계연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특수건물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선향상계획(SMS)보고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공정안전(PSM)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장은 총 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공장은 2003회계연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소화설비할인검사 등 원수보험 회사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하게 되며, 특수건물할인율은 화재위험도 미평가에 따라 기준할인율 25%를 적용한다.

## 호텔신라(서울, 제주) 및 삼성레포츠펀터, 『화재 안전성 평가』 수행

연구건설팅부는 호텔신라(서울, 제주) 및 서울 서초동 삼성레포츠펀터에 대한 화재안전성 평가를 3월 한 달간 실시한다.

『화재안전성 평가』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삼성계열사 중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위험의 정도를 계량화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방재설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따라서 호텔신라와 삼성레포츠펀터는 기업경영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고객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보다 신뢰성이 향상된 최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향후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평가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험사고물건 손해사정회사 재계약 체결

협회는 동양화재 등 10개 손해보험회사와의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에 따라 화보험회에서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방위산업체 등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할 2003회계연도의

손해사정회사 10개사와 위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손해사정회사들은 국방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의해 시설 및 물자의 손해사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위촉된 회사 가운데 손해사정 인원, 업무실적, 손해사정기술 전문성 및 보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회사로서, 이번엔 재계약을 체결한 10개 손해사정회사는 다음과 같다.

- 아세아손해사정(대표이사 최항식)
- 다스카손해사정(대표이사 정경섭)
- 세종손해사정(대표이사 손명식)
- 김스코손해사정(대표이사 장재혁)
- 서진손해사정(대표이사 김규선)
- 인코손해사정(대표이사 신현길)
- 국제손해사정(대표이사 양돈모)
- 카스코손해사정(대표이사 김영중)
- 대영손해사정(대표이사 이신근, 설동권)
- 태양손해사정(대표이사 황희동)

(이상 설립순)

## FY2002 서울지역 방위산업체 초청간담회 실시

특수업무부는 지난 2월 21일 『관급물자 보증과 보험의 상관 관계』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주요 방위산업체 특수업무부 관급물자 담당자 및 보험 담당자를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대우종합기계(주) 등 방위산업체 직원 14명과 특수업무부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수업무부의 주수호 팀장의 '관급보증의 중요성과 보험으로 위험 전가'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태우 차장이 '관급보증의 보험 컨소시엄과 PL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위산업체 직원들은 "이번 간담회로 업체간 정보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관급보증의 위험을 인식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